

[종교·복지]

■ 광주 무등교회 영화 동아리 '해석 공동체' 영화보고 토론하고... 종교로 풀어내고...

무등교회 청년회 팀장인 명기환(24)씨는 요즘 영화에 푹 빠졌다. 원래 영화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교회가 한 달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영화 동아리'를 이끌면서 영화를 접할 기회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했다.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익숙한 매체인 영화를 통해 설교 등 선교 활동을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예배 팀 콘퍼런스'를 통해 알려진 '해석 공동체'는 호남권의 무등교회를 비롯해 서울 강남교회·공교, 영남 대구 침산교회, 충청 늘사랑교회 등 전국 5개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청년들 15~20여 명 참여 진솔한 느낌 상호 교환 기독교인으로의 삶 돌아와

"다닌치 코드"가 출판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영화로 나오자 한기총에서 상영금지 처분을 내린 것처럼 영화의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영화를 보는 필터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영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영화 선정은 정 목사와 청년회 팀장인 명 씨가



'해석 공동체'에 참석한 청년회원들이 정재민 목사(사진 가장 왼쪽)와 함께 영화 관람 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함께한다.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는 제외하지만 종교 영화만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에 관련한 영화는 한정되어 있는 데다 뽑아낼 것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5명이 함께한 9월 둘째 주에는 영화 '투 브라더스'를 관람했다. 영화는 어렸을 때 헤어진 형제들이 15년 만에 재회하고, 인간의 품을 벗어나 야생으로 되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존경 받고 싶다면 잔인해져라"라는 영화 속 대사는 이날의 핵심 화두. "잔인해지지 않으면서도 존경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호랑이는 호랑이다 워야 존경받듯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아야 존경

받을 수 있다", "인간에 걸들여진 영화 속 호랑이처럼 현대인도 무언가에 걸들여져 있지 않을까" 등 여러가지 의견이 펼쳐졌다.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시종일관 자연스럽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청년회 회원 김소진(여·22)씨는 "종교적인 면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들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종교인으로서 확신을 정립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성정기자 ksj@kwangju.co.kr

종교칼럼



여연 스님

體露金風

<가을 바람에 전체가 드러난다>

이와 관련한 예화를 소개한다. 한 남자가 존재의 본체를 깨닫기 위한 길을 떠났다. 수천지를 걸어 지친 육신을 겨우 지탱한채 오로지 마음하나 깨달았다고 장안의 큰절에 이르러 조식(깨달음을 얻은 큰 스승)스님을 만나게 됐다. 남자는 "어떤 것이 우리를 본래면목(本來面目)이니까"라고 물었다. 스님은 "그대 너는 어디 어디를 거쳐서 여기에 다다랐느냐"라고 되물었다. 이곳 저곳을 떠돌아 이곳에 왔다는 남자의 말에 스님은 뜬금없이 "그러면 지금 곡식이 잘 익고 있는 현량 땅 그 곡창지대를 거쳐서 왔겠구나"라며 "그대, 그러면 그 곳 현량의 쌀값은 얼마나 된다느냐"고 물었다.

남자는 여러동절 대담을 못한 채 머뭇거렸다. 수개월 걸어 참으로 힘들게 큰스님께 이르러 일생을 공부하여 묻는 진리에 큰스님께서 영광한 쌀값을 물으니 어찌 당황하지 않겠는가. 머뭇거리는 수좌를 향해 조식스님은 "그만 됐다. 가 보거라"고 퇴방시켰다.

이 예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 육신을 지탱해준 밥, 현실의 쌀값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체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존재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 알라의 진리도 철저한 현실을 떠나는 없다. 체로금풍 소식이 불어오는 이 풍성한 가을, 우리들 앞에 온 몸으로 드러내는 현실을 잘 읽자.

<해남 대승사 일지암 임주>

매주 수요일 '빛고를 불교 아카데미' 열린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하는 '2006 빛고를 불교 아카데미'가 다음 달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빛고를 불교 아카데미'는 지난해 불교의 대중화 바람을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대중 강좌다. 이번 해에는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를 주제로 부처님의 생애와 현대인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설명한다. 부처의 생애를 8개의 그림

으로 표현한 팔상성도를 중심으로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 서울 능인선원주지 지광스님, 서울 조계사 주지 원담스님 등 대표적인 불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한다. 빛고를아카데미 운영위원 진화스님(중심사 주지)은 "불교의 기본을 정리한다는 취지로 부처님 생애를 주제로 정했다"며 "불교 지식과 함께 현대인의 삶을 방향을 제시하는 강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234-0090

■ 2006 빛고를불교아카데미 일정표

Table with 3 columns: Date, Topic, and Speaker. It lists the schedule for the Buddhist Academy from October 11 to November 29, 2006.

노인 등 저소득층에 4억 4,600만원 전달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흥식)가 28일 추석을 맞아 무연고 노인, 한부모 가정, 재가 장애인 세대, 장애아 입양가족, 한센병 정착촌 등 저소득층 2만 2375세대에게 4억4600여만원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2억2천만원에서 두 배 늘어난 것으로 가구당 지원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가했다.

전남모금회는 또 소규모 복지시설 66곳에 추석명절 공동저축상 마련비용 4천500만원을 지원했다.

Advertisement for '영화안네' (Movie Anne)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the text '영화안네'.

Advertisement for '메가박스' (Megabox)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타짜' (Tazza) featuring a movie poster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컬럼버스 시네마' (Columbus Cinema)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라디오스타' (Radio Star) featuring a movie poster and promotional text.

Large advertisement for '건물매도' (Building Sale)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dvertisement for '일가공인중개사' (Real Estate Broker) listing services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LC타워(주)' (LC Tower Co.) listing real estate services.

Large advertisement for '21세기부동산건설(주)' (21st Century Real Estate Construction) featuring a wedding hall promotion.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Real Estate Broker)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